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믹 컨트리 클럽**

반복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정원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rgy.co.kr 080-320-7700

어렵게 점수 내면 홈런에 무너지기 일쑤

## ‘한방’ 없는 KIA ‘한숨’

팀 홈런 고작 14개 ... 8개 구단 중 ‘최하위’

최희섭·장성호 등 부상 ‘거포부재’ 시달려

‘한방 없는 KIA의 한숨’

올 시즌 네 번째 만원 사례를 이룬 지난 22일 광주 무등경기장 KIA 타이거즈는 1회부터 2루타 2개를 몰아치며 선취점을 뽑아 순조롭게 출발했다. 반 게임차 우리 히어로즈를 끌어내리고 6위로 한 계단 뛰어 오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5회 롯데의 한방에 무너졌다.

김주찬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연속안타로 1-1 동점, 그리고 1사 1,2루에서 가르시아의 3점포가 터지면서 점수차가 1-4까지 벌어졌다. 전날 경기에서 정보명에게 만루홈런을 허용하며 5-6으로 어렵게 패배했던 KIA는 또다시 상대 홈런포의 위력에 눌려 2-6으로 저 2연패에 빠졌다. 앞선 세 번의 만원 경기에서 모두 패배했던 KIA는 ‘만원 징크스’ 탈출에도 실패했다.

롯데의 한방에 아쉬운 2연패를 당한 KIA는 ‘거포’ 부재로 유난히도 힘든 시즌

을 보내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KIA의 팀 홈런은 14개로 8개 구단 최하위다. 홈런구단 한화는 KIA의 3배가 넘는 48개의 홈런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7위팀 LG도 KIA보다 8개가 더 많은 22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팀 내 홈런 1위는 최희섭으로 그나마 4개에 그치고 있다. 이어 장성호·차일목·이현곤이 2개의 홈런으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김상훈·이재주·발데스·김주형이 마수같이 홈런을 기록했다.

홈런을 때린 8명 중 22일 경기에 주전으로 나선 이는 차일목·발데스 2명뿐이다.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던 최희섭은 지난 13일 허리 통증으로 2군으로 내려갔다. 설상가상 조모상에 감기몸살까지 겹치면서 회복이 더더 복귀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장성호·김상훈도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2군에 머물고 있다. 발바닥 부상에도 전 경기에 주전으로 나와 고전했던 이현곤은 결국 22일 결장했다.

이재주·발데스도 신통치 않은 방망이 탓에 현재 1군에서의 입지조차 불안하다. ‘만년 유망주’ 김주형은 발목 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 다시 2군으로 내려가 팬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차세대 거포로 최희섭과 함께 KIA의 ‘한방 야구’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인 나지완은 최하위에서 맏도는 팀 성적 탓에 1,2군을 오르내리며 22일 현재 47타석에 밖에 들어서지 못했다. 나지완은 0.189의 타율에 머물며 아직 홈런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장성호의 합류 소식은 모처럼만에 희소식이다. ‘스나이퍼’ 장성호는 다음주 27일 홈에서 펼쳐지는 SK와의 경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소총부대’ KIA 타선에 한 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한방’, 선발진의 붕괴로 침체일로에 놓인 KIA의 중위권 도약에 ‘한방’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지존’ 신지애 ‘버디퀸’ 박지은 맞짱?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2R

나란히 16강 진출

먼 4장 티켓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8강전 ‘빅이벤트’ 성사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신지애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윤채영(21·LG)을 16강전 상대로 만나 무난하게 8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이 많은 매치플레이의 특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박지은이 16강전에서 맞붙게 된 상대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 김혜윤(20·하이마트)으로 정해져 8강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란(22·먼싱웨어)을 1회전에서 만난 신지애는 10번홀(파4) 버디로 한발 앞서나간 뒤 14번홀(파4)에서 버디를 보태며 2홀차 승리를 거뒀다. 박지은은 이정은(20·김영주골프)을 맞아 한수 위 기량을 과시하며 3홀차로 이겨 16강에 올랐다.

전날 치른 스트로크플레이에서 32위로 간신히 탈락 위기를 모면한 특급 신인 유소연(18·하이마트)은 스트로크플레이 1위 합영



에(21)에게 5홀차 대승을 올리며 가볍게 16강에 진출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지은희(21·힐라코리아)는 장지혜(22·하이마트)에게 1홀차로 무릎 꿇고 휘닉스 스파클래스 우승자 김하늘(20·코오롱)이 정해진(21·하이트)에게 1홀차로 저 탈락,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세계 군인 태권도 대회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체육부대에서 세계 37개국 군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8회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편급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오른쪽) 선수가 예민 선수에게 발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정무호 ‘지옥의 4연전’

31일 요르단과 홈 경기... 요르단·투르크·북과 원정게임

28일 대표팀 소집 ... 박지성·이영표 등 ‘몸만들기’ 분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28일 소집을 앞두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1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 요르단과 홈 경기를 시작으로 원정경기인 요르단(6월7일), 투르크메니스탄(14일)에 이어 북한과 홈경기(22일)까지 23일간 1주 단위로 네 경기를 잇따라 치러야 한다.

소집 명단 25명을 확정된 허정무호는 상대팀 전력 탐색과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으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해외파 태권도사 7명은 속속 입국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영표(보트브림 후스퍼)와 김동진(제니트 샤프테르부르크)는 FC 서울, 설기현(풀

럼)은 강릉시청,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은 성남, 오범석(사마라FC)은 고양 국민은행에 각각 위탁돼 몸을 만들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동시 제패에 성공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은 24일 귀국하고 김남일(빛셀 고베)도 25일 교토 퍼플상가와 경기를 끝내고 27일 입국해 대표팀에 합류한다.

허정무 감독도 상대팀 요르단을 꺾 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허 감독은 김현태 골키퍼 코치와 함께 25일 오전 중국 상하이로 넘어가 당일 오후 4시 중국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벌이는 요르단의 전력을 분석한다.

요르단은 홈, 원정 두 경기 연속 맞붙어야 하는 만큼 경기 결과가 한국의 최종예선 진출 여부를 판가름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 북 여자축구 또 불참

‘2008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 수원대회

아시아 최강 북한 여자축구가 다음달 14일 수원에서 개막될 여자축구 국가대표전 ‘2008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에 또 출전하지 않는다.

피스퀸컵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최근 공문을 보내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고 23일 밝혔다.

2006년 제1회 피스퀸컵 때도 대회 개막 직전 당시 핵심 멤버로 인해 참가를 포기한 데 이어 두번째다.

지난 15일 작성된 북한측 공문은 평양에서 합작으로 평화자동차 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권 대표를 통해 19일 조직위에 전해졌다. 조직위는 다시 한번 북한 측과 접촉해 대회 참가를 권했지만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개막전 남북대결도 무산됐으며, 조직위는 대회 개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팀을 물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북한을 대신할 팀은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혹은 가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체팀과 계약하기 위해 직원이 급파됐으며 빠른 주달 새로운 팀과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 8개팀이 출전하는 이번 피스퀸컵은 수원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 2곳에서 2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 팀이 결승에 진출해 우승을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 상금은 20만 달러이며, 준우승 팀에게는 5만 달러가 돌아간다.

윤동식, 무사시와 붙는다

日 격투기 드림대회 8강전



유도 출신 격투기 스타 윤동식(36·사진)이 일본 종합격투기 드림(DREAM) 대회 8강 토너먼트에서 게가드 무사시(23·네덜란드)와 맞붙는 것으로 확정됐다.

드림 주최사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윤동식이 내달 1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드림 4’ 미들급 그랑프리 8강에서 무사시와 대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미들급 16강에서 오야마 순고(34·일본)를 심판 전원일치(3-0) 판정승으로 꺾고 8강에 오른 윤동식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해 5월 프라이드에서 K-1으로 이적한 이후 5연승에 도전한다.

## 광주 동성고 준결승 올라

청룡기 고교야구 포철공에 8-1 콜드승

광주 동성고가 제6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포철공고를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동성고는 23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8일째 포철공고와 8강에서 4번 타자 겸 에이스 임익현의 눈부신 활약을 앞세워 8-1로 8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임익현은 선발등판해 8이닝 동안 공 126개를 뿌리면서 6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승

리투수가 됐고 타석에서도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활약을 펼쳤다.

동성고는 0-1로 끌려가던 3회 말 2사 만루에서 최승원과 송탄비의 연속 안타로 4득점해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5-1로 앞선 8회에 포철공고의 실책에 편승해 한점을 보탠 뒤 1사 1, 3루에서 임익현이 주자일소 좌중간 3루타를 날려 승부를 마무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4일 (토)

▲2008 PGA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 2R(05:30·SBS골프)

▲2008 메이저리그(볼티모어 : 탬파베이)(08:00·Xports)

▲NBA 플레이오프 2008 서부컨퍼런스 결승 2차전(10:00·SBS스포츠)

▲제63회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11:00·MBC ESPN)

▲2008 한국여자 프로골프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일째(12:50·Xports)

▲2008 베이징올림픽 세계여자배구 최종예선(대한민국 : 카자흐스탄)(15:00·KBS n sport)

▲2008 프로야구(SK : 롯데)(16:50·Xports) <삼성 : 한화>(17:00·KBS n sport) <LG : 기아>(17:00·MBC ESPN) <두산 : 우리>(16:30·SBS스포츠)

25일 (일)

▲2008 LPGA 코닝클래스 3R(03:00·SBS골프)

▲2008 PGA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 3R(04:00·SBS스포츠) <05:30·SBS골프>

▲2008 메이저리그(샌프란시스코 : 플로리다)(08:00·Xports)

▲2008 베이징올림픽 세계여자배구 최종예선(도미니카 : 대한민국)(11:00·KBS n sport)

▲2008 한국여자 프로골프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4일째(12:50·Xports)

▲2008 프로야구(SK : 롯데)(16:50·Xports) <삼성 : 한화>(13:30·KBS n sport) <LG : 기아>(17:00·MBC ESPN) <두산 : 우리>(13:40·SBS스포츠)